

수능 재채점…초유 ‘입시 대란’

평가원, 물리Ⅱ 복수정답 인정…교육부 “불이익 없게 수시 추가합격 요청”

“성적표 재발송”…정시모집 마감 28일로 연기

수능 시험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이미 전형이 끝난 수시모집과 전형이 진행 중인 정시모집 등 전체 입시 일정 차질은 물론, 등급 재산정에 따른 입시 대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정경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 탐구영역 물리Ⅱ 11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물리Ⅱ 11번 문제는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라프에 대한 3개의 설명문 중 옳은 것을 고르는 3점짜리 객관식 문항으로, 지난 22일 한국물리학회가 “단원자 분자인지 단위자 분자인지 제시하지 않아 복수의 정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로써 물리Ⅱ 11번 문제의 정답은 기준의 ④번 외에 ②번도 인정된다.

평가원은 “정시모집 전형에서 수험생들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해당 대학에 다시 채점한 성적을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며 “성적 등급이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한 학생은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합격자로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등급 조정이 발생하는 수험생에 한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28일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학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적표 재배부는 물리Ⅱ 11번 문제로 인해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된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으로는 물리Ⅱ를 선택한 수험생들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대학에서는 이 수험생들이 다른 과학탐구 영역을 고른 학생들과 경

쟁하는 것으로 크든, 적든 자연계수험생 전체에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수능에서 물리Ⅱ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1만9천597명이며 이중 복수정답 인정으로 등급이 뒤바뀌는 수험생은 1천여명 가량인 것으로 평가원은 추산했다.

물리Ⅱ 과목에서 1등급은 받은 수험생은 991명(5.06%), 2등급은 1천 290명(6.58%) 등이다.

정 원장은 “물리Ⅱ 문항의 정답처리 과정에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광주 일곡중앙교회(정연수 목사)가 24일 마

련한 제8회 성탄절 거리 축제 일곡동 한마당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거리파레이드를

벌이는 아기 예수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워치링기자 jrwi@kwangju.co.kr

2010년부터 내신·수능 반영 자율화

李 당선자 대입 로드맵…자립형 사립고 최소 100곳 늘려

늦어도 2010년 대학입시부터는 각 대학이 내신성적과 수능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학 입시 3단계 자율화 공약 가운데 1단계 방안을 최소한 2010년 말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에서부터 적용한다는 당선자 측의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공약이란 1 단계에서 각 대학이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학생 및 대학의 특성에 따라 4~6개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대입 전형의 결정권이 완전히 대학에 넘어가게 된다.

이 단신자의 교육공약 성안에 참여한 핵심인사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당선자가 일일이 검토해 대입 자율화 공약을 직접 발표한 만큼 내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시기의 경우 갑자기 제도를 바꾸기보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자율화 1 단계 방안을 적용한다는 생각”이라며 말했다.

그는 “이는 대입 전형 계획을 3년 전 발표해야 하는 현행 3년 예고제를 존중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다만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11학년도 입시부터는 미국에서 시행중인 입학사정관 제도

등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그는 “이후 입기 내에 2단계와 3단계 자율화 방안도 차례로 적용되겠지만 정확한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정권 인수위가 출범하면 장기 로드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2월말 정권 출범 직후 이후보가 공약했던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신설돼 대입제도 개선 방향과 고교 정규 교육과목 및 수능과목 조정과 관련한 정부와 교육계간 협의 청구로 가능하게 된다.

이 밖에 현행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에 준하는 자율형 사립고를 최소한 100곳 가량 더 만들고 전문계 특성화고인 ‘マイ스터 고교’ 50곳과 농촌 및 낙후 도시에 ‘기술형 고교’ 150곳을 신설하는 등 특성화고교 300 개를 만드는 방안도 정권 출범과 함께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권 인수위는 이 당선자의 ‘대부처 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를 과학기술부 등과 통합·재편하기 위한 작업에도着手할 예정이다.

엑스포 조직위

내년초 공식 출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내년 초 공식 출범한다.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유치위 김영석 기획홍보본부장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유치위 유치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단식을 가지며, 이번 주내에 조직위원회 구성을 준비할 준비기획단이 가동된다.

우리나라는 내년 3월 세계

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준비

상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하고 5월 차기 BIE총회

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직위 출범과 함께 위원장

인선도 관심이 될 전망이다.

통상 조직위원장에는 부총리

급 이상을 역임한 인사가 임명

되는 게 관례였다.

/총행기자 redplane@

“당현대로 당권-대권 분리”

李 당선자·姜 대표 회동…정무수석 부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회동을 갖고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현행 당현·당규를 유지한다”라는 선에서 합의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부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두 사람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자 집무실이 될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갖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당과 청와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이 제기한 ‘당권·대권 분리 당현·검토’ 논란 및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강 대표는 “당정책이 인수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당선자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화답했다.

강 대표가 이에 “그연장선상에서 당 정책 기능을 담당했던 사무처 쪽 전문인력도 인수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견의하자 이 당선자는 “긍정적 으로 검토하겠다”며 임�헤 의원에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문의: 062)220-0561

제47회 경제정의 기법상 수상

한국 100세를 살피는 ildong 일동제약

머리 아플 땐, 캐롤을 부르세요~

효과가 빠르다, 위장 부담이 적다 –
캐롤에프의 이부프로펜아르기닌 효과!

체내에 신속히 흡수되어 효과가 빠릅니다
흡수 초진체인 아르기닌에 의해 이부프로펜의 흡수가 흡진보가 효과가 빠릅니다.

위장보호 작용으로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아르기닌의 뛰어난 헬퍼역할을 즐기시기하고 위장의 흡수를 줄여 위장을 편하게 흡진보가 효과가 빠릅니다.



가격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번호: 080-022-1010 | www.ildong.com